

일본의 면방적

- 산지와 함께 사업하며, 존재감 높이고 있어 <2/2>

◎ 신나이가이멘 - 에코 베이스의 특화사 안·캐러밴에 뿌듯한 반응

신나이가이멘(新内外綿)은 2008년 5월에 군마현(群馬縣)의 기류(桐生) 산지와 도치기현(栃木縣)의 아시카가(足利) 산지로부터 안 캐러밴(yarn caravan : 실 隊商 - 상품을 싣고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상인)을 시작하였다. 2009년 7월까지 총 11개 산지에서 신나이가이멘의 원사를 수요자들에게 제안하였다. 단섬유 산지, 장섬유 산지, 제직·편성 산지(製織·編成 産地) 등 일본 전국에 있는 주요 산지를 두루 돌아다녔으며, 각 회장(會場)마다 30 ~ 60개사가 관람하고, 총 1,000명 이상이 참관하였다.

당초에 이 캐러밴은 신나이가이멘의 고지(告知)와 PR(Public Relations : 광고 활동)로 각 산지와 접점을 만들어, 주로 신나이가이멘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활동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산지에서 예상보다도 좋은 반응이 있어, 11개 산지에서의 캐러밴은 큰 성과를 올렸다.

샘플 의뢰, 견본사(見本絲) 의뢰는 어느 산지에서나 20 ~ 30건이나 있었다. 각 회장마다 리퀘스트 카드(request card), 앙케트(enquete)를 나누어 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면서 즉시 영업에서 폴로(follow)하였다.

산비(三備) 또는 비슈(備州) 지역은 지금의 오카야마현(岡山縣)과 히로시마현(廣島縣)의 ‘비젠-備前·비추-備中·빙고-備後’ 지역을 말하는데, 이 지구에서는 텐셀(Tencel) 100% 실, 텐셀·면 혼방사의 9번수, 10번수의 슬립이나 얼룩실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후쿠이(福井)·니카타(新瀉)의 호쿠리쿠(北陸)에서는 경사(經絲)에 장섬유를 사용하고 위사(緯絲)에 단섬유를 사용한 교직을 짜기 위하여, 신나이가이멘의 원사를 위사로 사용하겠다는 유저가 많았다.

2008년 9월은 도카이(東海) 3개 산지를 대상으로 가마고오리(蒲郡)와 하마마쓰(浜松)에

서 전시되어 총 94개사 200명이 참관하였는데, 산모도(産元 : 産地内の 都賣商)인 텍스타일 관계자가 많이 관람하였다.

근래에는 오사카 섬유 리소스 센터(大阪 纖維 resource center)에서 개최된 얀·캐리밴도 호평(好評)을 받았다. 산지라고 할까, 집산지라고도 할 수 있는 도쿄 시장에 제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텍스타일 메이커들은 현재 산지도 다음의 행사를 어떻게 할지 또는 텍스타일·비즈니스가 매우 위축(萎縮 : shrink)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 신선도가 높은 것, 화제성이 될 만한 것 등에 대해, “우리 회사의 뛰어난 소재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이 회사의 얀(yarn) 제안은 2010년 춘하절 ~ 2010년 추동절 또는 2011년 춘하절까지를 검토하고 있다. 원사를 개발한 소재에 대하여 신나이가이멘과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 공동 연구)을 해보는 시방사(試紡絲) 의뢰는 다른 해보다도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어떻게 벌크(bulk)로 이어나가느냐, 또한 영업의 폴로(follow)가 중요하게 된다.

신나이가이멘으로서는 복합사(複合絲), 형상(形狀), 색상(色狀), 혼용률(混用率)을 활용하여 텍스타일 메이커와 공동으로 새로운 타입의 실을 만들어 낸다. 이색 연사(異色 撚絲 : 모쿠이도), 얼룩실로는 ‘텐셀 × 마’ 혼방의 이색 연사 등 이 회사에서는 현재, 월간에 약 200 품종의 실을 만들고 있다. 시방(試紡)에 대하여는 소량도 받고 있다.

당분간 이 회사의 전략은 환경에의 공헌을 베이스로 에코를 상재(商材)로 하여 특화된 원사를 개발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텐셀, 복합사도 포함한 면사, 마 등 환경과 블렌드 방적(blend 紡績)을 키워드로 한 새로운 타입의 방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의 직물·편물의 텍스타일도 원료로부터 제품까지 생산함으로써 보다 좋은 제품을 제안할 수 있다. 실뿐만 아니라 텍스타일, 제품 등으로까지 사업을 넓혀 수요가(需要家)에게 제안해 나갈 것이다.♣